

최지민 “정면으로 승부 하겠다”

정해영 복귀해도 마무리 출격
“올 시즌 달라진 건 멘탈 강해져”
올스타 베스트 12 중간투수 선발
“KIA, 더 높은 곳으로 이끌겠다”



더 빠르고 강해진 최지민이 ‘호랑이 군단’의 뒷문을 지킨다. KIA 타이거즈 정해영이 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1군 엔트리에 재등장했다. 시즌 초반 부진으로 5월 28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정해영은 완벽한 페이스를 찾지 못해 공백이 길어졌다. 35일 만에 정해영이 돌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대로 최지민이 출격할 예정이다.

불펜진에서 가장 페이스가 좋은 만큼 KIA는 최지민을 ‘최후의 보루’ 삼아 탈출에 나선다. 지난 1일 3연패 고리도 최지민이 끊었다.

최지민은 5-3으로 쏘기던 8회 2사에서 출격해 9회까지 18개의 공으로 1.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1위 LG의 5연승 질주를 막아 섰다. 대체 선발 김건국을 내세웠던 KIA는 최지민의 활약 속을 시즌 15경기에서 1.66의 평균자책점으로 10승 ‘무패’ 행진을 하고 있던 플랫코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만들었다.

지난 시즌 6경기에 나와 6이닝 동안 승패 없이 13.5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던 최지민은 올 시즌에는 KIA 불펜의 핵심이 됐다. 시즌이 끝난 뒤 호주리그에서 질풍코리아 소속으로 경력을 쌓고 스피드도 상승하면서 150km의 강속구로 상대를 제압하고 있다.

하지만 첫 풀타임 시즌을 보내면서 지난 6월 실패의 순간들도 있었다.

5월 11경기에서 ‘0’의 행진을 했던 최지민은 6월에는 11경기에 나와 11.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3.18의 평균자책점으로 1홀드 1세이브 그리고 2패도 남겼다. 올 시즌 첫 홈런을 맞는 등 2개의 피홈런 10개의 볼넷도 남겼다. 최지민에 맞서는 상대도 더 집요하게 분석하고, 공략하고 있다.



최지민

최지민은 “계속 경기 하면서 상대가 분석하는 게 느껴진다. 그만큼 더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상대를 잡아야 할 것 같다. 요즘 실점도 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와 힘들기도 했다”며 “직구 위주로 던지다가 변화구로도 가고 변화를 주다보니 매경기 공부가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상대의 분석 속 최지민에게 주어진 상황도 만만치 않았다. 정해영이 빠지면서 최지민은 마무리 역할을 맡아 부담 많은 시간들을 경험했다.

최지민은 “경기 장면을 나중에 보니 안 맞으려고 피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원래 여유로운 상황에 나갔었는데 촉박한 상황에 나가다 보니까 안 맞으려고 했던 것 같다”며 “실점하면서 힘들기는 했지만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그 날만 아쉬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멘탈이 가장 달라진 부분이자, 올 시즌 배운 중요한 교훈이다.

최지민은 “멘탈이 좋아진 것 같다. 작년에는 잘 안되면 마음에 씩었다. 형들이 ‘매 경기 잘할 수 없으니 빨리 잊고 다음 경기 준비하라’고 많이 이

야기해줬고, 그런 부분이 발전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KIA 선발진이 무너지면서 불펜진 투입 시점에 변수가 많다. 예상치 못한 등판이 늘었지만 최지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최지민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해서 못 던지면 그건 핑계다. 매경기 어떤 상황이든 등판을 생각한다”며 “날이 더워졌는데 트레이닝 파트에서 짜주는 운동 열심히 잘하고 있고, 밥 잘 먹고, 잘 자면서 컨디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성적으로 올 시즌 KIA의 히트 상품이 된 최지민은 최근 나능 올스타 베스트 12 중간투수로도 당당히 선발됐다.

첫 올스타전을 베스트 멤버로 나서게 된 최지민은 “지난해에는 못 했는데 올해 잘 한다고 많이 좋아해주셔서 기분이 좋다.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팬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뽑아주셨다”며 “아직 부족한 모습도 많다. 많은 표를 주신만큼 남은 시즌 더 잘해서 팀이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하성 2득점...샌디에이고 12-5 대승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두 차례 득점해 팀의 대승에 힘을 보탤다.

김하성은 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신시내티 레즈와 치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방문 경기에 1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치고 2득점을 올렸다.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57로 약간 내려갔다. 샌디에이고는 신시내티를 12-5로 제압했다.

1회 삼진, 3회 외야 뜬공으로 몰려난 김하성은 1-1로 맞선 6회초 무사 1루에서 신시내티 유격수의 실책 덕에 1루를 밟았다. 김하성은 1사 후 타진 후 안 소도의 우중월 석 점 홈런에 힘을 보탤다. 매니 마차도가 좌중단 담을 넘기는 연속타자 홈런을 날

려 샌디에이고는 5-1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김하성은 7-1로 도망간 7회에도 3루수 송구 실책으로 2루에 도달한 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적시타 때 팀의 8번째 득점을 올렸다.

8회 무사 1, 2루에서 김하성은 깨끗한 중전 안타로 만루 찬스로 연결했고, 샌디에이고는 희생플라이로 2점을 보태 12-5로 승패를 갈랐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배지환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벌인 밀워키 브루어스와 홈경기에서 8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해 2타수 무안타에 볼넷 1개를 얻어 1득점 했다. /연합뉴스

FIFA, 오프사이드 개정 논의...수비 몸 '완전' 넘어야

국제축구연맹(FIFA)이 오프사이드 규칙을 개정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2일(한국시간) 스페인 스포츠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를 인용해 FIFA와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새로운 오프사이드 개념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논의되는 새로운 오프사이드 개념이 도입된다면 공격수의 몸이 골키퍼를 제외한 최종 수비수의 몸을 완전히 넘어야 오프사이드 선언이 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장면에서는 심판이 공격 팀에 유리한 쪽으로 판정하게 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상대 진영에서 패스를 받은

시점에 공격수의 팔과 손을 제외한 몸이 골키퍼를 제외한 최종 수비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는 경우 오프사이드가 선언된다.

따라서 최전방에서 공을 잡는 공격수의 몸이 일부라도 골키퍼를 제외한 최종 수비수의 몸보다 앞섰다면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다.

아르센 벵거 전 아스널 감독이 제안했다는 새로운 오프사이드 규칙은 이른 시일 내에 이탈리아와 스웨덴, 네덜란드의 하위 리그부터 도입돼 시범 운영된다고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란, '금녀의 공간' 축구장에 여성 입장 허용 추진

이란이 정부 차원에서 '금녀의 공간'으로 뒤틀린 축구장에 여성의 입장을 허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이란축구협회 수장이 공식 확인했다.

메흐디 타지 축구협회 회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여성이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국가안보회의(NSC)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타스통신 등이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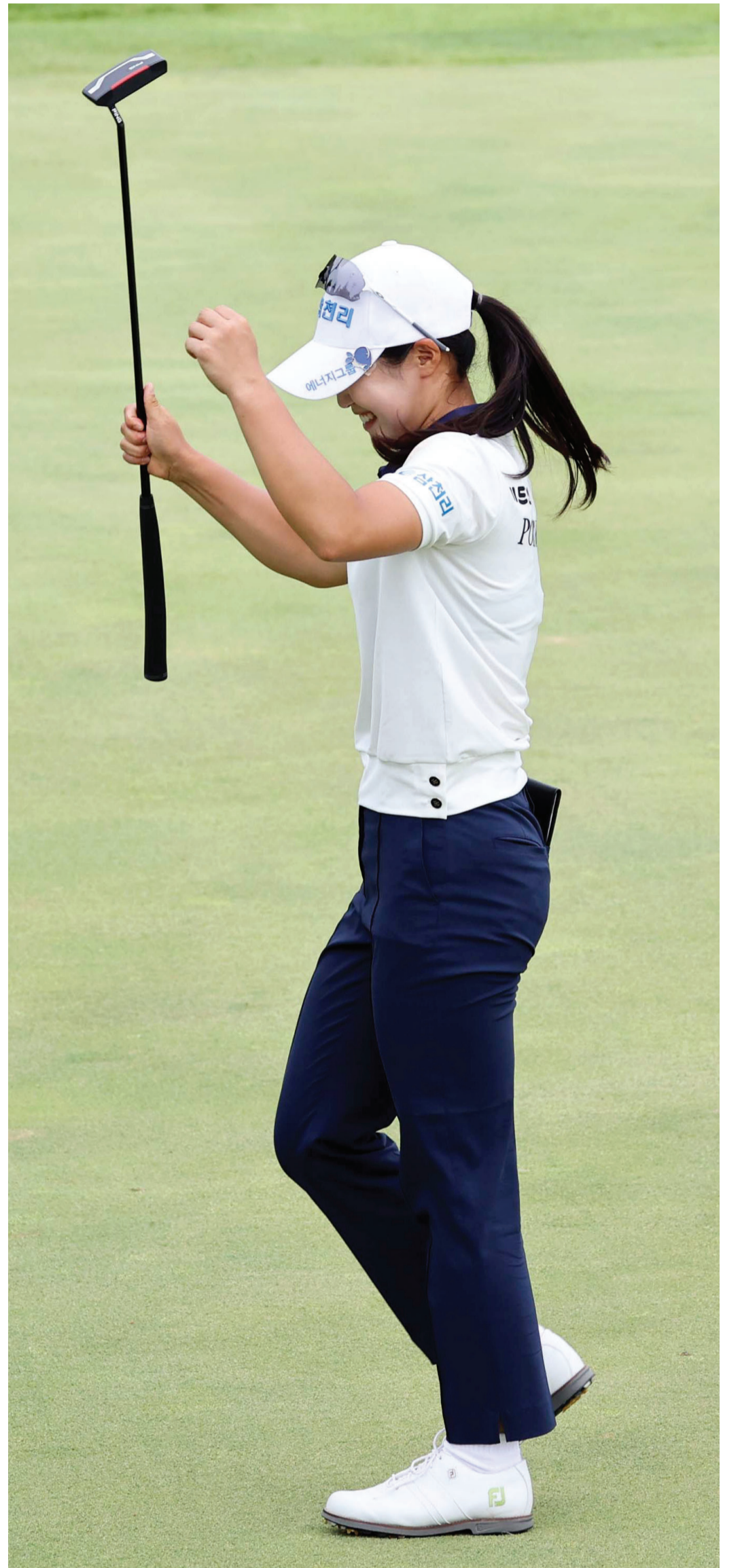
NSC는 정부 내 핵심 인사가 모여 이란의 국내외 안보, 치안, 외교 정책 등을 총괄하는 기구다. NSC가 의결한 사안이라 해도 최종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반포하려면 이란 권력의 정점인 아야톨

라 세에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사회로 바뀌어 여성의 축구장 입장을 금지했다.

이란에서 여성이 축구경기장에 입장한 기록은 1981년이 마지막이다.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금녀 정책’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란 당국은 2018년 10월 친선 경기에 여성 200여 명을 입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선수 가족이나 고위 공직자 등으로 제한된 신분이었다. /연합뉴스



고지우가 2일 강원 평창 버치힐CC에서 열린 '맥콜 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 파이널라운드에서 우승이 확정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지우, 버치힐 고지에서 우승

KLPGA 맥콜·모나 용평 오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2년차 고지우(20)가 최종 라운드에서만 7타를 줄이는 대역전극을 펼친 끝에 생애 첫 우승을 따냈다.

고지우는 2일 강원도 평창군 버치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맥콜·모나 용평 오픈(총상금 8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쳐 최종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우승했다.

안선주와 이재영을 3타차로 제친 고지우는 KLPGA투어 44번째 대회에서 처음 우승하는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1억4400만원. 지난해 데뷔한 고지우는 체격은 큰 편이 아닌데 드라이버샷 비거리 5위(평균 249.2야드)에 오른 장타력으로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합기도와 공수도 유단자인 고지우는 힘과 체력에서는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선두 송가은에 4타 뒤진 7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고지우는 초반부터 버치를 폭격처럼 쏟아내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4번 홀까지 버치 3개를 뽑아내 송가은에 1타차로 따라붙었다.

5번 홀(파4) 보기로 주춤하 싶었지만 8번 홀(파5) 버치로 만회한 고지우는 10번 홀(파5)에서 이글 한방으로 리더보드 맨 뒷줄을 꿰찼다. /연합뉴스

296야드를 날아가는 드라이버 티샷을 페어웨이 에 떨어진 뒤 214야드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으로 홀 3m 옆에 볼을 떨어뜨리고 침착하게 이글 퍼트를 집어넣었다.

13번 홀(파4)에서 또 1타를 줄인 고지우는 15번 홀(파5)에 10m 먼 거리 버치 퍼트에 성공해 2타차로 달아났다. 가장 어려운 15번 홀에서 이날 버치는 3개 밖에 나오지 않았다.

고지우는 16번 홀(파4)에서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려 숲으로 향하는 위기를 맞았다.

프로비저널 볼을 치러다 볼이 나무를 맞고 러프에 떨어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고지우는 볼을 페어웨이 쪽으로 살려낸 뒤 세 번 만에 그린에 볼을 올리고선 2m 파퍼트를 넣어 췌기를 박았다.

17번 홀(파3)에서도 그린을 놓치고 5m 파퍼트를 남기는 위기에 몰렸지만, 고지우는 이번에도 파퍼트를 숙여넣었다.

고지우가 17번 홀에서 파세이브에 성공했을 때 송가은은 16번 홀(파4)에서 1타를 잃고 3타차로 밀려 사실상 고지우의 우승이 굳어졌다.

고지우와 함께 경기하면서 3언더파 69타를 친 쌍둥이 엄마 안선주는 한때 1타차 2위까지 추격했지만 15번 홀(파4) 보기 이후 1타도 줄이지 못하면서 공동 2위(11언더파 205타)에 만족해야 했다. 단독 선두까지 올랐던 이재영이 2타를 줄여 안선주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